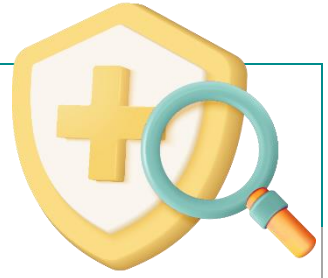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6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6월 2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 호재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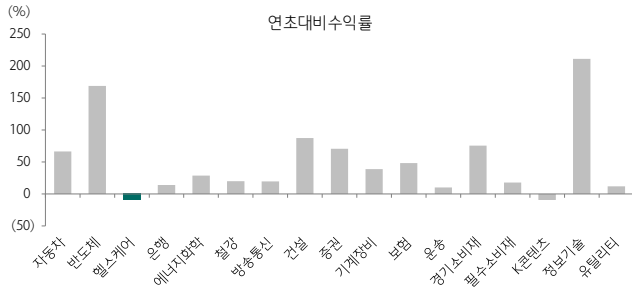
### 1) 2026년 6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2Q에는 호재가 많았고 더 있을 것** 1분기는 우리 섹터에 약재가 많았지만, 2분기는 호재가 많고 지금도 쌓이고 있다. Immunovant가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에서 긍정적인 초기 효능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주목 받았고, 5월 ASCO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온코네티라퓨틱스 등이 긍정적인 항암 후보물질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모두를 가슴 졸이게 했던 디앤디파마텍의 DD01의 MASH 임상2상 48주 데이터가 5월27일 EASL에서 발표되었고, MASH 개선/섬유화 개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1일이 되자마자 한미약품이 유의미한 규모(1.9조원)와 선급금(약 6%)의 구조로 Eli Lilly 향 빅딜을 성사시켰는데, 희귀의약품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valuation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성과이다. 그리고 같은 날 오스코텍도 미국 제약사인 Agios 에 9,600억원 규모의 약 4% 선급금을 수령하는 세비도플레넵(SKI-0-703)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릭스도 로레알의 추가 투자를 받게되었다(로레알 계열 VC 포함 1,100억원 유상증자)! 그러나 한미약품과 오스코텍의 기술이전 성과와 올릭스가 수령할 투자금은 충분히 유의미한 규모임에도 주가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분위기이고, 긍정적인 R&D 데이터를 발표한 기업들도 주가는 모두 발표 전의 수준으로 내려왔다. 아직 기대할 만한 호재는 많이 남았고, 이미 빅딜을 해낸 기업에도 여전히 추가 이벤트가 남아 있다. 섹터의 분위기가 회복한다면,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 가장 먼저 주가가 회복될 것이니 위에서 언급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추천한다.
- **상반기 학회 시즌의 종료** 일시적이긴 하나 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성과에 따라 알맞게 반응하였다. 상반기 주요 학회 중 5월 학회인 ASCO(미국암학회), EASL(유럽간학회)는 종료되었고, 6월 학회 중 ADA(미국당뇨병학회), ENDO(미국내분비학회)가 남았지만 대부분 초록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이벤트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6월22일 Bio-USA는 파트너십 행사이기 때문에 R&D 성과 공개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파트너십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계약 공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7월-8월은 큼지막한 학회나 컨퍼런스는 없지만, 제약사 및 바이오텍들이 종종 R&D 데이 개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R&D 데이는 투자자에게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하반기 임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거나 R&D 데이 일정쯤 L/O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 2) 2026년 6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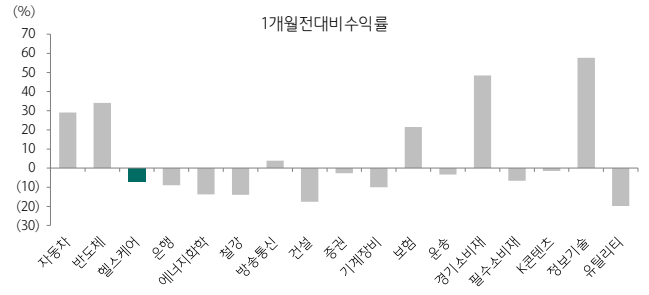
- **6월 코스피 Top pick: 한미약품**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희귀의약품인 단장중후군 치료제인 “소네페글루타이드”를 Lilly에 기술이전 하였다. 시장에서 대부분 이 파이프라인을 valuation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에 이번 기술이전의 가치 반영되어 있지 않다. Lilly 향이라는 점과 1.9조원이라는 상당한 규모, 약 6%의 유의미한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건임을 고려하면 전고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당한 규모라는 판단이다. 한미약품이 연간 가이던스로 “1건 이상의 L/O”를 내세운 만큼, 수요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수이고, 한 파이프라인 당 여러 잠재 파트너가 존재하고, term sheet이 논의된 정도로 성숙한 수준으로 계약이 논의 중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 L/O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 **5월 코스닥 Top pick: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1) 디앤디파마텍의 MASH 치료제 DD01의 2상 데이터 수준에 비해 주가 반응은 미진하였다. 지금까지 빅파마향 기술이전 또는 M&A 성과를 달성한 MASH 치료제 임상 사례를 보았을 때, DD01도 빅파마향 L/O감으로 충분하다. 2) 올릭스도 로레알 계열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주가는 부진하다. 단순히 투자 목적이었다면 105억원 보다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 작은 규모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래서 더 기다려볼 가치가 크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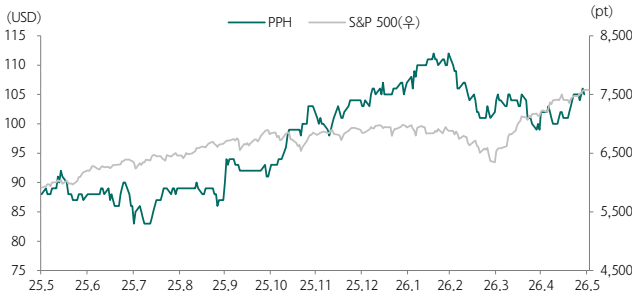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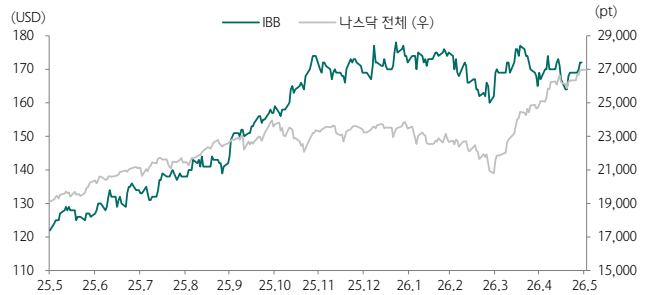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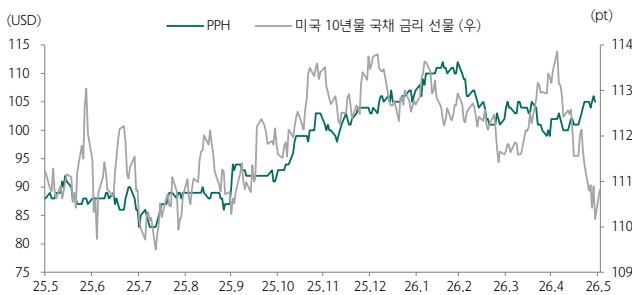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2.59%), Novartis(10.52%), MSD(9.52%), Novo Nordisk(5.87%), Pfizer(4.80%), Sanofi(4.29%), BMS(4.28%), GSK(4.19%), AbbVie(4.08%), AstraZeneca(4.0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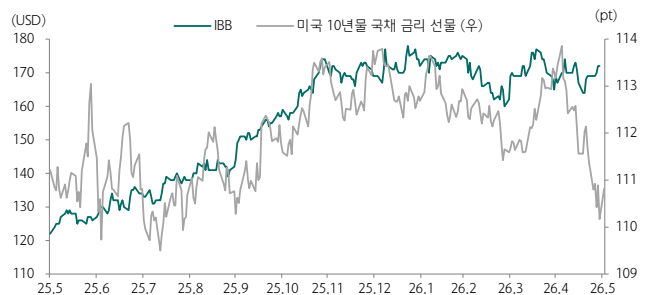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52%), Vertex(7.37%), Amgen(7.25%), Regeneron(5.93%), Alnylam(3.61%), Argenx(3.49%), Biogen(2.68%), Natera(2.48%), Revolution Medicines(2.44%), United Therapeutics(2.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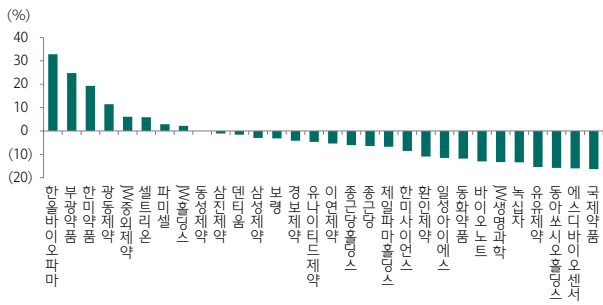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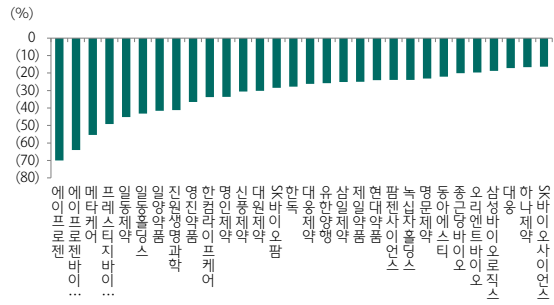
주: 6/1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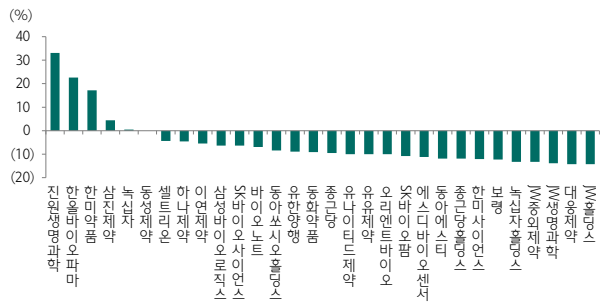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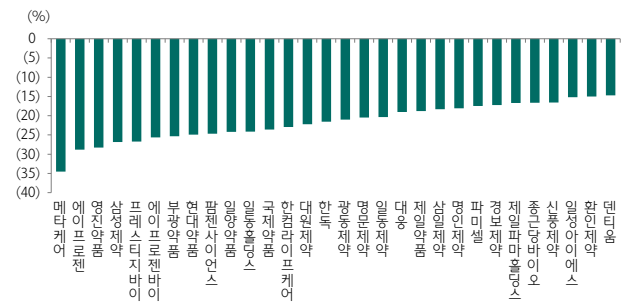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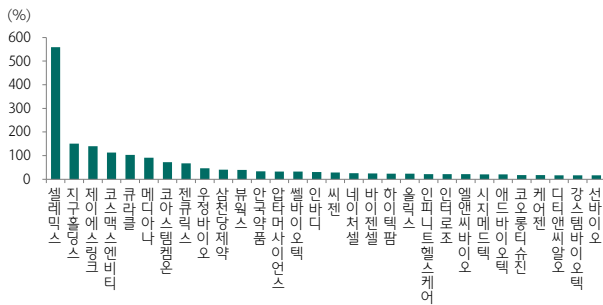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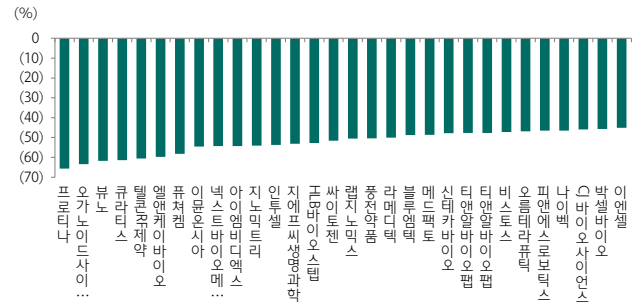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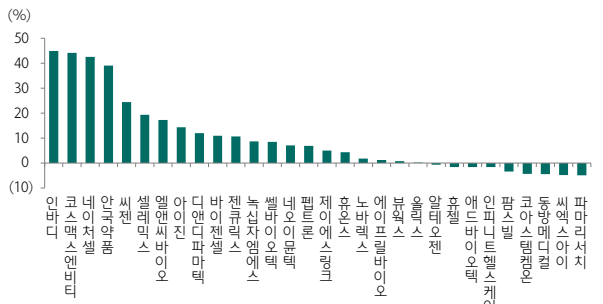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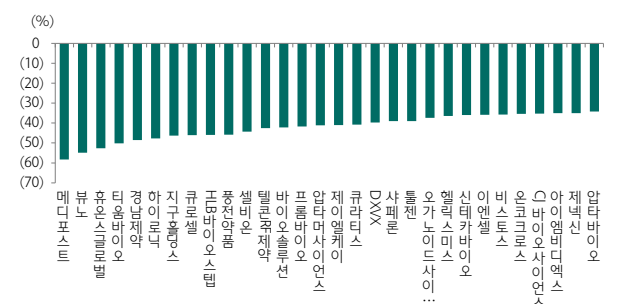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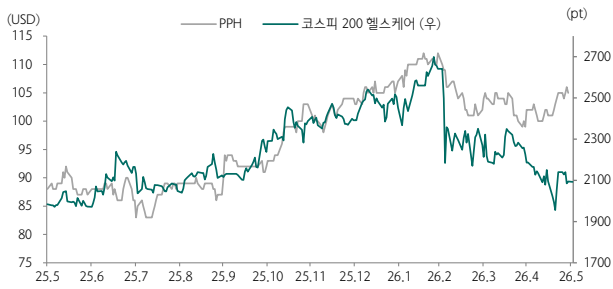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6/1 증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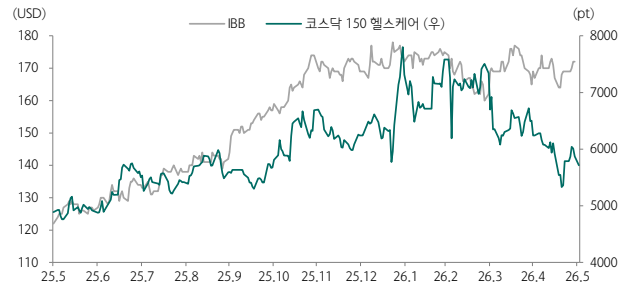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6/1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2.59%), Novartis(10.52%), MSD(9.52%), Novo Nordisk(5.87%), Pfizer(4.80%), Sanofi(4.29%), BMS(4.28%), GSK(4.19%), AbbVie(4.08%), AstraZeneca(4.0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6/1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52%), Vertex(7.37%), Amgen(7.25%), Regeneron(5.93%), Alnylam(3.61%), Argencx(3.49%), Biogen(2.68%), Natera(2.48%), Revolution Medicines(2.44%), United Therapeutics(2.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5/18 이후)

### [5/15 ~ 진행 중] 휴온스랩 합병 이슈

- 휴온스랩과 휴온스의 합병설로 휴온스글로벌 주가는 급락한 반면, 휴온스의 주가는 상승하는 기조를 보임.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연대는 이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5/15일자 기준 290명 주주가 82만주(6.48%)를 결집함. 휴온스랩은 휴온스글로벌의 계열사로 정맥주사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 형태로 바꾸는 SC 전환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로 기술이전설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왔음.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랩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휴온스와 합병하면 휴온스랩 기업가치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지분가치로만 반영하게 되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음.
- 5월18일 결국 휴온스와 휴온스랩을 합병하기로 결정. 휴온스글로벌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에서 두 자회사간의 합병에 당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온스글로벌 주주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원천 차단된 점을 문제로 지적. 이에 직접 찬반 의사를 묻는 임시주총 소집을 진행할 예정. 이번 합병 안건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되면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중요해질 수 있음. 7월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할 예정.

### [5/18 ~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문제 부각

- 5월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총 파업으로 송도공장의 23개 batch가 드랍될 가능성이 제기됨.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의약품 생산용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계기가 잠시 멈추거나 환경 변화에 따라 세포 상태가 변화될 수 있고, 기록의 연속성, 기준치 미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의 공익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회사와 노조간의 갈등에 고용노동부 이상의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은 “대한민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갈등 상황에서도 견고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한편, 23개 배치 드립되는 경우, 원부자재 비용, 생산 차질, 매출 인식 지연 등을 포함해 약 3000억~6000억원 수준의 영향도 거론됨. 그러나 회사에서 파업 기간동안 언급한 규모는 1,500억원이고, 23개 배치 드랍으로 인해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폐기물 발생으로 예상치 보다 높은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률 감소도 고려해야 함. 한편 정확한 매출/이익상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시점은 실적발표 시기 (7월 초).

### [5/15] 아리바이오(비상장), 푸싱제약에 7조원 규모 알츠하이머 신약 기술이전

- 중국 대형 제약사 푸싱(Fosun)제약에 총 7조원 규모(로열티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선금금 150억원. 글로벌 임상3상 중인 알츠하이머 경구 신약 AR1001로, 7월 초쯤 마지막 환자 방문이 종료되고, 최종 데이터 분석 후 10월경 타라인 결과 발표. 옵션 계약금으로 900억원 수령하였고, 3상 타라인 발표 후 옵션 행사시 1200억원 추가 수령함.
- 아리바이오는 이 외에 천연물 의약품 후보물질인 AR1004, 루이소체 치매 대상 AR1005의 국내 임상을 준비 중이고, 전자약 솔루션도 개발 중. 과거 기술이전특례상장을 추진했으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상장에 실패. 이후 모회사인 소록스(조영 제조 및 판매 기업)에 흡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전략 추진해 옴.

### [5/18] Regeneron, Parabilis와 Helicon 기반 항체-헬리콘 접합체(AHC) 플랫폼 기술도입계약 체결(최대 \$2.3B 규모)

- 계약 구조는 선금금 \$50M, 지분투자 \$75M이고, 초기 타깃 5개 물질에 대해 AHC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마일스톤을 최대 \$2.2B까지 수령 가능함. AHC는 Helicon 펩타이드 기반인데, Helicon은 세포투과성 α-나선형 펩타이드임. 항체가 세포 표면의 특정 타겟에 결합하고 내재화된 후, Helicon이 세포 내 타겟에 결합하여 상호작용하거나 억제하는 기전을 발휘할 수 있음.

### [5/21] Lilly, Engage Bio 인수하여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추가 확보

- 계약규모는 현금 \$202M를 지불하는 것. 추가 마일스톤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계약금은 미공개. Engage Biologics는 비상장 바이오텍이고, Tethosome이라는 비바이러스성 DNA, RNA 등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API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함. Tethosome은 COVID-19 mRNA 백신에 적용되었던 LNP 기술에 자체 mRNA 기술과 DNA 페이로드를 결합한 구조임.
- Lilly는 이번 Engage Bio 인수로 올해만 세 번째 유전자치료제 전달 플랫폼을 확보함. Orna로부터 LNP 기반 전달체 확보, Kelonia로부터 AAV 기반 전달체, 그리고 이번 Engage로부터 Tethosome 기반 전달체를 확보하였음.

### [5/20] 한올바이오파마 및 Immunovant, IMVT-1402의 난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 공개

-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초기 결과(중간 결과) 데이터로, 오픈라벨 16주차에서 ACR20(관절염 증상지표로, 20% 이상 좋아진 환자 비율) 72.7%, ACR50(moderate 등급 개선지표) 54.5%, ACR70(sever 등급 개선 지표) 35.8%의 반응을 확인함.
- 이날 Batoclimab 개발은 완전 중단하며, 임상 중단에 따른 계약 비용 \$39M 지급했다고 밝힘. 추가 임상 업데이트는 2H26 예정, 3Q26 피부 루푸스(CLE)의 PoC 타라인 공개도 예정되어 있음.

### [ASCO] 지아이노베이션, GI-101A 단독의 고품암에서 효과 확인 및 GI-102와 키트루다 병용 1/2상 데이터 업데이트

- GI-101A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표준치료 실패 환자 단독 36명, 병용 48명 등록): 단독의 경우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방광암 환자 PFS 13.9개월 (vs. 파드셀 PFS 6개월)/ 신장암(n=10)에서 ORR 40%, DCR(질병통제율) 70% 확인, PFS 미도달/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성 입증하였고, 4차 이상으로 투약 중이나 ORR 40%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판단
- GI-102 및 키트루다 병용 1/2상 KEYNOTE-B59: 신세포암(ccRCC, n=10,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 환자 70.0%)에서 ORR 40.0%, DCR 70.0%, 반응 지속기간: 5.5개월 이상부터 16.7개월 이상까지 관찰. 중앙 DoR 아직 도달하지 않음

### [ASCO] 보로노이, VRN110755의 임상1/2상 뇌전이 관련 데이터 포함 업데이트

- VRN110755는 경구 투여 C797S 선택적 EGFR 저해제임. 평가 대상 환자 38명 중, 이전 EGFR TKI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28명(73.7%). 전체 환자에서 PR 18.4%/ DCR 92.1%. EGFR C797S 변이를 보유한 환자의 경우 ORR 85.7%, 두 명의 환자에서 뇌전이 CR 확인됨. 치료 관련 이상반응 Grade 1은 37%/ Grade 2는 20%/ Grade 3로 2% 대부분 경미한 수준, DLT 도달하지 않음

**[ASCO] 티움바이오, Tosposertib의 재발/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 1L로 키트루다 병용 2a상 데이터 중간 결과 발표**

- Tosposertib(TU2218)은 TGFβRI/ALK5와 VEGFR2를 동시에 억제하는 선택적 저해제. 재발/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R/M HNSCC) 환자에 대해 2a상을 진행 중으로, tosposertib + pembrolizumab 병용요법임.
- 12명 환자 중 ORR 50.0%(unconfirmed 75%). 이전 치료 1개 이상 받은 환자 14명에서의 ORR은 42.9%(confirmed이고, CR 1명).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은 3명 있었으나, 사망 사례 없음. (vs. Peer ORR: Petosemtamab 63%, BCA101 54%)

**[ASCO] 온코네티라퓨틱스, Nesuparib+GemAbraxane 병용 췌관선암 1L의 1b상 추가 데이터 공개**

- 췌관선암(PDAC) 1L 치료제로서, Nesuparib+GemAbraxane 병용군 임상1b상 추가 데이터를 공개함. mOS 14.2개월(데이터 미성숙, 추적관찰 진행 중)은 일찍이 확인되었고, ORR 53.8%, mPFS가 아직 도달하지 않음. 비교 가능한 1L 치료제인 mFOLFIRINOX 병용군의 경우, ORR 38.5%, mPFS 7.33개월, mOS 18.5개월

**[ASCO] 셸비온, Lu-177-DGUL의 PSMA 임상1/2상 추가 데이터 공개**

- 총 91명의 환자 등록, 3L 이상의 PSMA에 대한 결과로 전체 환자군에서 mOS 13.31개월, 중앙 rPFS 11.04개월 확인됨. . VISION 연구에서 mPFS 8.7m, mOS 15.3m였음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함. 그러나 두 임상 간의 환자 군과 SoC 투약 가능성 여부가 다르고, 림프구 독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키트루다 병용은 Lu-177-DGUL 효능이 현저히 높을 것이라 판단함.
-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더욱 약효가 강하게 나타남. rPFS 차이가 PCWG3-modified 기준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되어, 골 전이가 흔한 mCRPC에서는 PCWG3 특이적 평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5/26] Lilly의 백신 기업 Curevo 인수 및 녹십자의 지분 매각 등**

- Lilly는 Curevo를 인수 (최대 규모 최대 \$1.5bn). 이로써 대상포진 치료제 후보물질인 amezosvatein을 확보함. GSK의 Shingrix와 경쟁 포지션으로 내약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 전략. Lilly는 Curevo 외에도 2개의 백신 기업을 추가 인수 (LimmaTech Biologics 최대 \$780M, Vaccine Company 최대 \$1.55B)
- GC 녹십자는 Curevo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지분을 Lilly에게 매각함. 매각 금액은 \$304M로 약4,599억원 (GC 녹십자 자본대비 32.99 %, 시총 1.7조원 대비 27.48 % 규모). 양도예정일은 2026-08-24임. Curevo는 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함께 2017년에 미국에 설립한 NewCo 기업임. 지분 매각 후에도 GC녹십자는 CMO와 로열티를 확보하여, 미국 현지 백신 사업의 완전한 정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개발 자금 확보이므로 의미가 깊은 성과

**[5/27] 디앤디파마텍, MASH 임상2상 48주 성공적인 생검 데이터 공개**

- EASL 2026에서 2상의 마지막 2차 지표인 48주 조직생검 결과를 발표함. F1~F3 환자 대상, 무작위, 이중맹검, 주1회 투약, 미국 임상 결과 (위약 보정): 간 지방이 30% 이상 감소 64% (p<0.0001), MASH 개선 57.2%(p<0.001), 섬유화 개선 34.2%(p<0.05), 동시 달성한 환자 32.2%(p<0.05). 기존에 빅파마에 기술이전된 사례가 많은 FGF agonist 계열 MASH 치료제의 성과에 비해서도, 효능 수치 및 통계적유의성을 모두 달성한 측면에서 서프라이즈 결과.
- 한편, Altimmune도 pemvidutide MASH IMPACT 2b상의 비침습 분석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24주차에 ELF >0.5 감소 및 LSM >30% 감소 동시 달성을 pemvidutide 1.2mg 37.8%, 1.8mg 22.7% (vs위약 8.3%), p<0.001, p=0.002를 보였으나, 용량 의존적이지 않고, 비침습 분석데이터이므로 디앤디파마텍의 생검 결과 대비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5/28] Pfizer, Innovent와 항암제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 체결 (최대 규모 \$10.5B)**

- 계약 구조는 선금금 \$650M, 마일스톤 최대 \$9.85B까지 수령 가능하여, 총 \$10.5B 규모. 승인 시 각 제품 매출에 대해 최대 두 자릿수 로열티 수령 가능. 초기 단계의 항암제 1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Innovent가 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Pfizer가 4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임. Innovent는 임상1상까지 개발하고, Pfizer가 이후 임상 단계 및 글로벌 개발을 주도할 것. ADC 및 다중항체(multi-specific antibody) 중심으로 개발.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 일동제약(유노비아), 동아ST, HK이노엔, 펩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 프로티나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에이프릴바이오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십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7월	07월 01일	ESMO GI Cancer congress (유럽 종양학회)	ESMO gastrointestinal cancers annual congress	Munich, Germany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07월 12일	AAIC (국제 알츠하이머학회)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UK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동아에스티, 큐라클, 오스코텍(아델)
9월	09월 12일	WCLC (세계 폐암학회)	2026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Seoul, Korea	관련기업: 유한양행/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관련기업: 한미약품, 리가캠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관련기업: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앰클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6.01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Q25	1Q26	2Q26F	2025	2026F	2Q25	1Q26	2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2,581	961	1,145.0	1,249.6	4,162.5	5,304.0	242.5	321.9	402.2	1,168.5	1,762.7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63,743	1,588.6	1,257.1	1,324.3 (F.1,264.2)	4,557.0	5,427.3 (F.5,342.9)	532.1	580.8	592.6 (F.581.1)	2,069.2	2,505.1 (F.2,421.0)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12,006	nr	453.9	434.4 (F.434.4)	251.7	1,858.7 (F.1,858.7)	nr	90.6	68.5 (F.68.5)	-63.6	429.0 (F.429.0)
유한양행	6,643	579.0	526.8	626.5	2,186.6	2,345.1	49.9	8.8	63.1	104.4	134.0
녹십자	1,609	500.3	435.5	502.8	1,991.3	2,038.7	27.4	11.7	21.0	69.2	74.7
한미약품 (TP: 640,000원)	6,905	361.3	392.9	389.7 (F. 402.9)	1,547.5	1,641.6 (F. 1,698.1)	60.4	53.7	64.3 (F. 55.7)	257.8	264.2 (F. 259.6)
대웅제약	1,474	405.5	377.8	415.1	1,570.9	1,647.1	57.9	22.2	49.3	196.8	198.3
HK이노엔	1,237	263.1	258.7	275.5	1,063.2	1,110.1	19.5	33.2	31.4	110.9	130.3
종근당	1,070	434.9	447.8	473.0	1,692.4	1,864.7	23.6	14.1	21.3	80.6	82.7
휴온스글로벌	379	212.7	197.0	nr	847.5	nr	25.3	9.2	nr	90.6	nr
동아에스티	380	194.0	203.6	205.7	808.8	837.0	-5.8	7.8	8.4	0.6	38.0
보령	748	251.5	255.4	257.6	1,017.4	1,057.7	25.4	20.2	20.9	65.1	80.2
SK바이오팜 (TP: 150,000원)	6,978	176.3	227.9	234.4 (F. 224.5)	706.7	954.8 (F. 929.3)	61.9	89.8	85.0 (F. 76.1)	203.9	334.0 (F. 302.6)
동국제약	869	233.5	251.0	266.9	926.9	1,061.9	22.1	27.3	27.2	96.6	115.4
에스티팜 (TP: 150,000원)	2,702	68.3	67.0	98.9 (F. 109.2)	331.7	414.7 (F. 418.3)	12.9	11.5	17.3 (F. 16.3)	54.9	76.5 (F. 73.9)
셀트리온제약	2,100	131.3	132.1	nr	536.4	nr	15.5	12.9	nr	56.1	nr
JW중외제약	630	191.1	199.9	nr	775.3	nr	25.0	33.6	nr	94.5	nr
일동제약	668	138.5	142.0	143.7	566.9	579.3	0.6	9.2	11.2	19.5	38.9
대원제약	187	143.9	158.1	153.3	605.4	636.3	-1.4	4.4	4.9	3.5	22.0
제일약품	167	137.6	130.3	nr	567.2	nr	4.7	0.4	nr	20.7	nr
삼천당제약	7,659	56.9	64.9	nr	231.8	nr	-1.1	5.5	nr	8.5	nr
바이넥스	291	44.5	35.3	49.2	168.5	186.1	1.0	-9.0	-0.5	-4.5	-4.4

주1: 1Q26→2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종목 선정: 2025년 9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QuantWise, FnGuide, 하나증권

##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및 주가하락 불가피 (변동 없음)

- '26년 가이드언스: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드언스는 제시하지 않음.
- '26년 1분기 실적: 매출액 1조2,571억원(YoY+25.8%), 영업이익 5,807억원(YoY+35.1%, OPM 46.2%). 1Q 내 록빌 공장 인수 마무리되었으나, 가이드언스를 조정하지 않음. CAPEX 확대나 가이드언스 상향은 3분기로 예상 (5% 상향 전망)
-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및 주가하락은 불가피할 것.

###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상향): 서프라이즈, 이 다음 지켜볼 사업 확대 (변동 없음)

- '26년 가이드언스: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26년 1분기 실적: 매출 4,549억원(YoY+14%), 영업이익 1,440억원(YoY +13%, OPM32%). 영업이익률이 연간 가이드언스(20% 유지)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이번 분기에 Biogen 향으로 SB4(엔브렐BS)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473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일시적). 추가 마일스톤은 3분기 예상 (약 132억원 추정).
- 인투셀과 공동개발한 ADC 신약 SBE-303의 다음 이벤트는 연말 EMSO로 기대. 에피소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IND 신청을 목표로 하나, '26년은 없을 것으로 예상. 최근 중국에 R&D 자회사인 "Samsung Bioepis China" 설립하고, 순수 연구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힘.

###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PGR 무효 심결, 신규 기술이전과 Qlex 처방 수 및 매출 증가 중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변동 없음)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은 최종 무효 심결로 종료. 기한인 6월2일 보다 2주나 빠른 심결. 남은 14개도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에 따라 가처분 명령 취소 외에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도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제는 분쟁 보다 실적이 중요해짐.
- 상반기 이벤트: 상반기에 12월 옵션 계약한 건의 본계약 기대. Keytruda Qlex의 J-Code 효과(보험청구가능)는 TRx의 경우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나(미국 보험 청구 절차인 Prior Authorization 때문에 소비자 요청에서 실제 처방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판단), WAC값은 상승 중. TRx 증가는 1-2개월 더 지켜볼 것.
-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과 코스닥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상장의 타당성을 논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코스피 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현재의 시가총액 상 코스피 내 비율은 0.3~0.5%에 불과함.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절차는 마친 상태로, 당초 계획 대로라면 6월 내 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곧 이전 여부를 확정하고 공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 한미약품 (TP 640,000원, 유지): Lilly 향 기술이전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 더 남아 있을 것

- '26년 가이드언스: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달성
- '26년 1분기 실적: 연결기준 매출액 3,929억원(YoY+0.5%, 컨센 3,908억원), 영업이익 536억원(YoY-9.1%, OPM 13.7%, 컨센 585억원)로, 매출(-1.2%)과 이익(-10.9%)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
- 6월1일 소네페클루타이드의 Eli Lilly향 기술이전. 총 계약 규모는 약 1.9조원, 선금금 약 1130억원으로 총 계약 규모 대비 6% 수준의 유의미한 구조. 단장중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1.9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 조건에 다른 적용종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 월1회 제형이므로 일반 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경우 시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함. (소장의 기능을 높이는 목적이므로,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판단)
- 기술이전 1건 이상이라는 가이드언스는 다수의 파트너 대상,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논의 중이기에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하반기까지 추가 L/O 기대감 유지. 우선 근육강장제 MH17321의 임상1상 SAD 데이터 공개가 7-8월 중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3Q 기술이전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유지함.
- 에페글레나타이드(국내 비만치료제 신약)는 '26년 하반기 시판허가 획득 및 출시 예정되어 있고, 멕시코 등 해외 진출 준비 중. 4분기부터 비만치료제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

### SK바이오팜 (TP 150,000원, 유지): 실적은 여전히 좋는데, 2nd 프로덕트는 언제...(변동 없음)

- '26년 가이드언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 '26년 1분기 실적: 매출 2,279억원(YoY+57.8%, QoQ+17.2%), 영업이익 898억원(YoY+249.7%, QoQ+94.0%, OPM39.4%)으로 각각 컨센서스 대비 7.0%, 24.7% 상회
- 한편,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드언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인데, 이에 따르면 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2nd 프로덕트 도입에 따른 부대 비용, 제네릭 개발사와의 소송 비용 (물질특허 '32년까지이고, 실무와 시가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 높음) 등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 비용이 가이드언스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이고, 2nd 프로덕트 도입 가능성과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단기적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 리카렘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학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술이전이 중요 (변동 없음)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중. '25년 10월 ESMO에서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ORR 75% 효능도 확인함. 해당 임상1상은 '26년 12월 종료 예정 (NCT05872295).
- '26년은 Ono(LCB97),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한편 5월 ASCO에 데이터 공개를 기대했던 파트너사가 참석하지 않게 되며 이번 달 이벤트가 부재. 그러나 미뤄진 데이터 발표는 하반기로 몰릴 것이니, 리카렘바이오에 대한 하반기 Top pick을 계속 유지함.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5월 27일 EASL 데이터 공개 성공적, 이제 기술이전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

- 5/27일 MASH 치료제 DD01의 임상2상 48주 간 생검 결과: F1~F3 환자 대상, 무작위, 이중맹검, 주1회 투약, 미국 임상 결과 (위약 보정): 간 지방이 30% 이상 감소 64% (p<0.0001), MASH 개선 57.2%(p<0.001), 섬유화 개선 34.2%(p<0.05), 동시 달성한 환자 32.2%(p<0.05). 충분히 빅파마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임상 결과라는 판단임. 참고로 Boston Therapeutics는 GSK에 Efimosfermin을 약 3조원 규모에 매각. Novo Nordisk가 Akeru 를 인수할 때 최대 7.8조원 규모, Roche가 89bio 인수할 때 최대 5.3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아직 주가 upside가 충분하다는 판단.
- Pfizer와 4/16일 경구용 펩타이드 이중작용제 제형 개발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액은 18.3억원으로, 계약상 올해 11월30일까지 개발. 다음 기술이전 대상으로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PK2 선택적 저해)에 주목.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을 미뤘는데, 기술이전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라 판단함(기술이전 없이 상장 어려운 분위기). 퍼스트바이오의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시기를 주시할 것.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발표 성공적, 3Q에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 GI-101/101a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표준치료 실패 환자 단독 36명, 병용 48명 등록) 데이터 발표: 단독의 경우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방광암 환자 PFS 13.9개월 (vs. 파드셉 PFS 6개월)/ 신장암(n=10)에서 ORR 40%, DCR(질병통제율) 70% 확인, PFS 미도달/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성 입증하였고, 4차 이상으로 투약 중이나 ORR 40%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판단. 현재 2상 준비 중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①번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3Q 예상).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순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 이벤트 대기 중 (변동 없음)**

- 에픽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올선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덕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주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5월 ASCO에서 PFS 및 OS 데이터 확인 후 주가 하락**

- 5월 ASCO에서 공개된 데이터 요약: 총 91명의 환자 등록, 3L 이상의 PSMA에 대한 결과로 전체 환자군에서 mOS 13.31개월, 중앙 rPFS 11.04개월 확인됨. VISION 연구에서 mPFS 8.7m, mOS 15.3m였음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함. 그러나 VISION 연구는 SoC 투약을 허용한 반면, Lu-Pocucotide는 더 이상 표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 또한 림프구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키트루다 병용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판단함. 또한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더욱 약효가 강하게 나타남. rPFS 차이가 PCWG3-modified 기준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되어, 골 전이가 흔한 mCRPC에서는 PCWG3 특이적 평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 받아 5월 내 첫 투약 예상.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 (Not Rated): 본계약을 기다리며 (변동 없음)**

- 터제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 물질 제형화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음. 지금까지의 소통 상황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 그 외 루프원의 국내 시판 허가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완료, 3Q 본계약과 CDMO 매출 기대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첫 번째 제형에서 확인된 스케줄 대로라면 2Q26 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연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에피스와 공동개발계약 체결로 높아진 기대감 (변동 없음)**

-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도 체결함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 4/20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였고, Semaglutide 독점 개발계약에 따라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개발 논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주가 상승.

**에스티팜 (TP 210,000원, 유지): 아주 좋은 시작, 기대할만한 한 해 (변동 없음)**

- '26년 1분기 실적발표: 연결 기준 매출액 670억원(YoY+27.7%), 영업이익 115억원(YoY+1024.6%, OPM 17.2%)으로,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4.7% 하회(703억원)하였으나 이익은 30.7% 상회(88억원)하여 서프라이즈
- 현재 분기별 수주 잔고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매출 4Q>2Q>3Q>1Q 예상, 상업화 물량 높아져 영업이익을 안정화 효과 확인하였으므로, '26년 영업이익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CAPEX 확대 소식도 있을 예정으로 연간 기대 요소 다수.
- 올해 하반기 고객사 2곳(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임상3상 탑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동시에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도 주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음. 탑라인이 성공적이라면 '27년 상업화 물량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HIV 신약 후보물질인 Pirmitegravir의 임상2a상 최종 결과 발표도 3Q26에 있을 것으로 예상.

**올릭스 (Not Rated): 로레알의 SI 투자로 협력 관계 더욱 공고해짐**

- 6/1일자, 로레알(L'Oreal)그룹 산하 VC 펀드인 BOLD(Business Opportunities for L'Oreal Development)에 약 105억원(70,367주), 미국 브룩데일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Brookdale Global Opportunity Fund), 미국 브룩데일 인터네셔널 파트너스(Brookdale International Partners)에 각각 651억원(435,500주), 350억원(234,500주)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 (1년 간 보호예수). 로레알의 SI 성격인 BOLD의 투자 규모가 100억원 대에 불과하여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듯 하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보다는 더 큰 규모로 투자를 감행했을 것이라 판단. 이번 투자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 성과나 추가 계약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한편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를 기대(Lilly의 옵션행사). 시장 규모가 큰 일반 질환을 타겟하고 있으므로, 개발 단계 상승 및 추가 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력은 매우 크다는 판단.
- 최근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를 선보였고, 비만원숭이 데이터가 6/22일 Bio-USA가 끝난 후 투자자에게도 공개될 것이니 기대할 것

**알지노믹스 (Not Rated): FDA로부터 RMAT 지정 (변동 없음)**

- 최근 Regeneron이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난청 유전자 치료제인 "Otarmen (AAV 기반)"을 승인 받으며 인공 와우를 대체할 치료제 등장함. Lilly도 최근 동향을 보아 유전자치료제 및 청력 상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Lilly와의 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 한편 4월 AACR에서 임상1상 중간결과 공개한 간암 치료제 RZ001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이어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지정도 획득함. RMAT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예비임상 결과를 통해 미충족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최근 임상2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짐. mRECIST 기준 ORR 61.5%, CR 23%/ RECIST 기준 ORR 38.5%(confirmed), 46.2%(unconfirmed). 향후 장기 추적으로 종양 사이즈만 보는 RECIST가 종양 내 괴사를 표현하는 수치인 mRECIST에 가까이 도달하는 것을 기대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2Q26-3Q26이벤트(2026.06.01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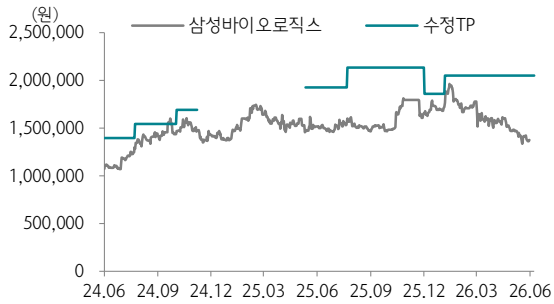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2Q26	3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363,000	50.4%	• 공장 증축 발표 기대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가이던스 상향 기대 • 7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1H26 내 록빌 공장 또는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삼성에피소홀딩스	620,000	484,000	28.1%	• -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369,000	57.2%	• 독일 가처분신청 예비판결 • 5월 중순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상승 확인(월별 추적)	• 코스피 이전 상장(3Q말~4Q 전망) > 계획 변경 가능성 있음	• 2Q26 내 작년 12월 옵션 계약 건의 본계약 체결 기대
한미약품	640,000	491,000	30.3%	• -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HM17321(근육증가)의 SAD 데이터 공개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허가	• 6/1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O로 가이던스 달성하였으나, 추가 L/O 전망 • 3Q26 내 MASH 학회 발표 하는 경우 9/28 EASD 유력 (간 질환 주요 학회는 11/5 AASLD임)
SK바이오팜	150,000	89,700	67.2%	• -	• 2Q26 실적발표 8월 초 예상	• 2 <sup>nd</sup>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캠바이오	220,000	151,100	45.6%	• -	•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에스티팜	210,000	134,100	56.6%	• 6/30 고객사 (고중성지방혈증) FDA 승인	• 고객사 2곳 3상 탑라인 발표 • Pirmitegravir 2a상 데이터 발표 • CAPEX 확대	•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탑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94,600	-	• DD01(MASH) L/O	• NLY-01 L/O 기대	• Pfizer와의 협력 관련 소식 기대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4,480	-	• -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1H26 중)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75,100	-	• -	• ALK7 타겟 비만치료제의 비만원숭이 데이터 공개 • Lilly의 옵션 행사	• 파트너십의 추가 투자: 릴리, 한소제약 (로레알의 추가 투자는 6/1 달성)
알지노믹스	NR	126,100	-	• 신규 L/O 기대	• -	• -
인투셀	NR	27,150	-	• 본계약/마일스톤 수령 등	• -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21,500	-	• -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2H26 이후 예상)
펍트론	NR	301,000	-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9월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50,900	-	• 신규 L/O 기대	• BI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26년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58,200	-	• 신규 L/O 기대	• -	• -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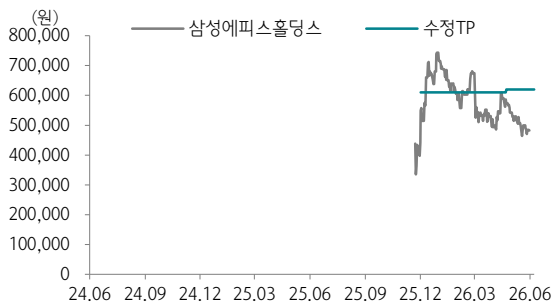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	-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23.10.5	BUY	1,398,157	-18.88%	-7.0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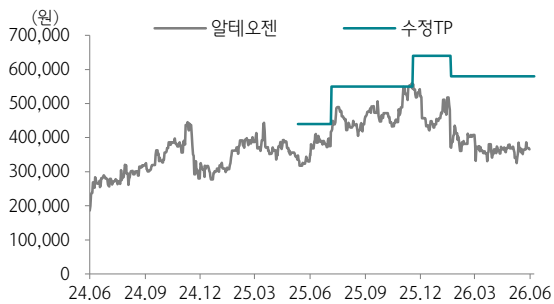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4	Neutral	620,000	-	-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25.11.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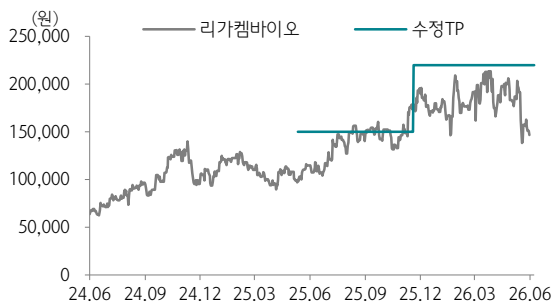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	-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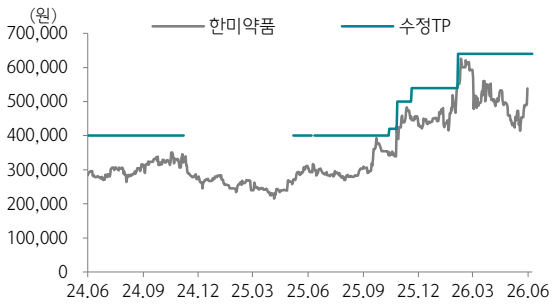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	-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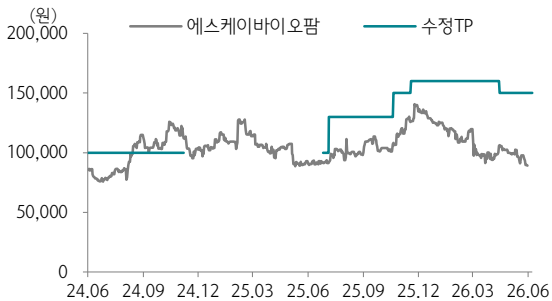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6	BUY	640,000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3	BUY	400,000	-24.33%	-1.75%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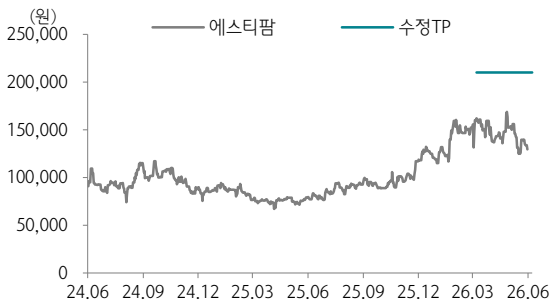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6	BUY	150,000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9	BUY	210,000		
25.7.18	Not Rated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6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5%	2.75%	0.00%	100%

\* 기준일: 2026년 05월 30일